AUTHOR 이근삼

TITLE 칼빈의 유아세례론

IN 고려신학
vol.1 no.1 (December, 1991): 135-148

칼빈의 유아세례론

이 근 삼

칼빈은 유아세례에 관하여 그의 기독교강요 1536년판에는 세례론의 끝에 간단하게 몇 귀절로만 언급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1]

사실 그 당시에 칼빈에게 있어서 유아세례의 문제가 초급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바젤(Basel)에서 기독교강요를 끝내려고 할 무렵에는 스위스 안에서 갈등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2] '스위스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고전 7 : 14,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는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다. 칼빈은 이 문제에 언급하기는 했으나 그의 언약교리와는 상관 짓지 않고 어린이들이 할례받은 옛시절과 같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만 하였다.[3]

그런데 기독교강요 1539년판에는 세례에 관한 문제는 몇마디 보완이 있었을 뿐이고 1539년판에서 특이한 것은 유아세례에 관해서 가장 긴 보완을 하면서 새로운 Section을 첨가 한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현재 일부의 광적인 사람들이 유아세례 문제로

---

1) Willen Balke,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trans. William J. Heynen(Eerdmans, 1981), 55.
2) Ibid., 56.
3) Ibid.,see Alting von Geusau, *Die Lehre von der Kindertaufe bei Calvin*, 66.

교회를 심히 소란하게 하며 선동을 그치지 않으므로 나는 그들의 광적인 작태를 제재하기 위해 여기에 부록을 첨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4] 이것은 유아세례를 배척하는 재세례파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4권 16장 전장을 "부록"이라고 부르고 자기의 유아세례를 전개한 것이다. 1559년 최종판의 16장 31절 한 절만 제외하고는 1536년판의 거의 모든 글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었다.

이제 칼빈이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재세례파의 비성경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오늘도 침례교회를 위시한 여런 교파들에서 유아세례를 반박함에 대하여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됨으로 이 논고를 쓰게 된 것이다.

칼빈과 재세례파간의 세례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유아세례가 성경적으로 확고한 기초를 가졌느냐?"하는 것에 집약된다고 할 것이다.[5]

재세례파에서는 한가지 성경귀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그 성경주의는 그들에게는 성경해석 문제와는 전연 무관할 것이다. 그들이 강조하는 바는 성경 아무데도 유아세례를 실시하거나 분명하게 인정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더우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세례의 의미는 법적으로 유효적으로 성례전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자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오직 기독교신앙 안에서 교육을 받은 자, 개종한 자,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어 버렸다고 믿는 자,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믿고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 물의 상징과 표 그리고 동반하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에 반대되고 천주교의 불신실에서 나온 새 제도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유아세례를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강하게 논박

4) 기독교강요 4 : 16 : 1

5) W. F. Dankbaar, *De Sacramentsleer van Calvijn*, (Amsterdlam, 1941) ; R.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Edinburgh, 1953) ; Willem Balke, 9.

하고 있다.

그러면 칼빈이 어떻게 유아세례를 정당화하며 재세례파의 부정론에 반격을 가하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그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Ⅰ. 유아세례의 정당성

1. 세례의 의미가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제정하신 의식(儀式)에는 반드시 그것이 표시하는 약속과 영적 비밀이 있다. 그러므로 세례의 가치와 목적을 바로 알고자하면 의식적 표징이 가지는 물질과 그 외형에서 보다는 세례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내면적 비밀을 생각하고 이해하여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6]

그러면 세례의 효력과 본질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가? 칼빈은 성경이 그것을 명확히 가르친다고 하면서 다음 네가지를 들어서 말한다. 그 하나는 우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되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세례는 우리의 육을 죽인다는 것을 가르치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셋째는 세례로 신자가 중생으로 새로운 생명을 갖게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간다. 넷째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표징이 된다.[7]

2. 세례와 할례의 관계가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확정한다.

칼빈은 세례가 제정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할례가 있었으므로 이 둘 사이의 신비적 관계를 알게 되면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6) 기독교 강요 4 : 16 : 2

7) Ibid.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창 17 : 7, 10)고 약속하시고 그의 언약의 성례전인 할례를 가지고 그 약속을 보증하셨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마 22 : 32 ; 눅 20 : 38)고 하시면서 신자들의 영생과 부활을 증명하였다고 칼빈은 말한다.[8]

바울도 에베소교회 신자들에게 그들을 멸망의 상태에서 구출하신것을 가르치실 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니라"(엡 2 : 12).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첫단계의 언약은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세례의 약속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에서 받는 것과 같은 영적 약속을 조상들은 할례에서 받았던 것은 할례가 그들에게 죄사함과 육을 죽이는 것을 의미 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례의 기초인 것같이 할례의 기초가 된 것도 명백하다고 주장한다.[9]

여기에서 칼빈은 할례와 세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말하는데 즉 내적 신비인 약속, 중생, 또 그것을 실현시키는 기초는 동일하다고 본다. 다만 외형적 의식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의식이 다른 점을 제외하고는 할례에 속한 것이 모두 세례에도 속한다고 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는 것이 곧 교회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으로 선택됨을 확증하는 표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겠다는 고백하는 표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그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충성을 맹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례가 할례를 대신함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8) Ibid., 4 : 16 : 3
9) Ibid.

3. 유아들도 언약에 참여한다.

하나님은 유아들에게 행하는 할례가 언약의 약속을 확인하는 인을 의미한다고 선언하셨다. "이에 내 언약아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창 17 : 13, 14) 이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외형적인 표징은 성례전의 말씀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둘은 분리시킬 수 없다.

유대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 불신자와 구별되어 거룩한 자손이라고 불리웠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들도 거룩하다고 인정되며 한쪽 어버이만 신자라도 깨끗하다고 사도는 확증한다(고전 7 : 14).

칼빈은 구약시대에 그 언약의 확증하는 방법으로써 할례가 제정되었으나 할례가 폐지된 후에도 주의 언약을 확증해야 할 이유는 여전히 변함 없다고 한다. 그런데 언약과 언약을 확증해야 할 공통점에서 신약에 와서는 그 방법이 세례로 대신한다는 것이다.[10]

Ⅱ. 그리스도의 어린이 축복하신 것을 보아 세례의 표징과 은혜에 어린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칼빈은 마 19 : 13－15에 기록된 사건을 인용하여 유아세례 반대론자들을 논박한다. "유아들을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왜 세례도 받게 하지 않는가?" "천국이 유아들의 것이라면 왜 표징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유아들을 우리가 쫓아내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이 아닌가?" 그런 일은 그리스도가 기꺼히 영접하는 어린이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었다는 것

10) Ibid., 4 : 16 : 6

을 증거하는 세례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받으시고 어린이들을 안으시며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유아들이 자신의 것으로 성별케 되었음을 선언하신 그 행동을 얼마나 더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아닌가?"고 말한다.[11]

그러므로 유아세례는 성경의 확실한 증거를 받은 것이며 결코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님을 누구든지 알 수 있다고 한다.[12]

비록 성경에 유아세례를 주었다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한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할때에는 유아들을 빼놓은 것이 아니므로 유아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없는 것이다. 칼빈은 이런 논리대로라면 사도시대에 여자들이 성찬에 참여했다는 기사가 없으므로 성찬에서 여자들은 제외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고 반문한다(행 16 : 15, 32).[13]

어린이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표징은 경건한 부모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며 주님은 부모들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주님이 되실 것과 그의 인애와 은총이 부모들에게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베푸시고자 하는 것이(출 20 : 6) 확실하게 되었다고 선언한다.[14]

칼빈은 경건한 사람들은 유아세례의 이런 뜻을 기억하고 주의 영광을 찬송하고 큰 행복감에 젖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고 송축론을 주장한다.[15]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녀들에게 있으리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봉헌하여 인치심을 받게 함으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유익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들도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받게 되는데 교회에 접붙임

11) Ibid., 4 : 16 : 7
12) Ibid., 4 : 16 : 8
13) Ibid.
14) Ibid., 4 : 16 : 9
15) Ibid.

을 받았으므로 인정을 받게 되며 장성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고무된다. 그 반면에 자기 자식에게 언약의 상징으로 표하는 것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주시겠다고 하신 경고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16]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창 17 : 14)[17]

Ⅲ. 제세례파의 유아세례 반대론에 대한 항변

1. 제세례파에서는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첫 근거가 할례는 문자적인 표징이고 할례의 약속은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례와는 서로 의미가 다르고 포함된 언약도 각각 다르고 어린이들에 대한 소명도 상이하다고 한다.

그러나 칼빈은 골로새 2장을 들어서 세례의 실행과 사실이 곧 할례의 실행과 사실과 동일하고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골 2 : 11) 이와 같은 이전의 할례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던 일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세례가 한다고 증명하려고 바울은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18]

칼빈에 의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영적이고 영생에 관한 것이 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한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호의를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증명하셨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19] 하나님께

16) Ibid.
17) 존 머리는 그의 기독교세례론(John Murray, Christian Baptism)에서 유아세례를 논하면서 칼빈의 사상을 따라서 (1) 아브라함 언약에 유아들이 포함됨. (2) 이 특권의 연속성, (3) 유아세례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8) 기독교 강요 4 : 16 : 11
19) Ibid.

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을 때에 그 은혜를 그의 목전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다른 약속을 첨가 하셨다(창 15 : 1, 18). 그러므로 칼빈은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지상적 약속은 영적 약속이 그 주된 것이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20]

2. 재세례파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고 한다. 즉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렀고 지금은 그의 믿음을 본 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다고 차이를 두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생을 얻도록 중생한 사람들은 예시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적 복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후손에게 약속된 일이 전혀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그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한다.[21]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다(창 12 : 3). 동시에 그와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창 17 : 7).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이 약속의 후사가 되며 아브라함의 자녀라 불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세례가 있으므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22]

유대인들은 그 부모에 의해서 성결케 된다고 함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도 그 부모에게서 동일하게 성결하게 된다고 고전 7 : 14은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

20) Ibid.
21) Ibid., 4 : 16 : 12
22) Ibid., 4 : 16 : 13

종자가 되었고 조상들에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셨다고 롬 15 : 8에 말함과 같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언약을 받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당연히 복음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고(행 2 : 39) 또 그들은 언약의 자손, 상속자 라고 하였다(행 3 : 25). 그래서 바울은 할례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졌다는 증거임을 말해주고 있다(엡 2 : 11-13). 칼빈은 이것은 제2계명에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신 약속과 결부시킨다.[23]

3. 재세례파에서 유아세례 반대의 세째 이유는 믿을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칼빈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24]

첫째로 어린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 받아야 한다. 어린이들이 아담의 후손됨을 인정 한다면 아담 안에서는 죽을수 밖에 없으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신다(마 19 : 14).

생명되신 주님은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여 데려오라 하시는데 재세례파들은 어린이들을 오히려 추방하고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고(롬 5 : 17-19)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소망이 없다고 한다. "나는 생명이라"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면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유아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중생되느냐고 묻는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구원받을 유아들은 주께서 먼저 중생시키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25]고 하고 세례요한을 그 증거로 삼으셨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모태에서 거룩하게 만드셨으니-"모태로부터 성령충만함을 입어"(눅 1 : 15)-하나님께서도 다른 태아들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26] 그러나 이것은 유아마

23) Ibid., 4 : 16 : 15
24) Ibid., 4 : 16 : 17-22
25) Ibid., 4 : 16 : 17
26) Ibid.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칼빈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좁은 범위내에 가두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행위를 폭로하려는 것 뿐이다."[27]

둘째는 유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유아세례를 반대하는데 칼빈은 하나님이 결코 일정불변의 법칙을 지정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방법 즉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다.

칼빈은 다음 몇가지를 반문하면서 답변은 미결론인 채로 남겨 두기로 한다고 하였다.[28] 1) 유아들이 조금 후에 완전히 누릴 은혜의 일부분을 지금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위험이 있는가? 2) 충실한 삶이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데 있다면 어떤 어린이가 아주 갓난아이 때에 죽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갔을 때에 확실히 그들은 하나님께 영접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유아가 지금 작은 빛으로 비추어 지기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그것을 불가하다고 할 이유가 있는가?

셋째로 유아세례 반대자가 유아들은 회개하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함에 대하여 칼빈은 할례가 회개의 표라는 성경의 증거를 열거하고(렘 4 : 4 ; 9 : 25 ; 신 10 : 16 ; 30 : 6 참조) 바울이 할례를 믿음으로 인한 의의 인(롬 4 : 11) 이라고 하였다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회개와 믿음의 성례전으로 유아들에게 할례를 주셨으므로 지금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다기 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것이다"고 칼빈은 역습한다.[29] 그리고 칼빈은 "유아들이 장래의 회개와 믿음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며 아직은 회개와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기지 않았지만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서 그 씨가 그들 안

27) Ibid.
28) Ibid., 4 : 16 : 19
29) Ibid., 4 : 16 : 20

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30]

이 성령의 역사를 칼빈은 어린이의 장성하기 전에 죽는 경우와 장성하여 세례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때를 나누어서 생각한다. 즉 택함 받은 자로서 중생의 표를 받았으나 어려서 죽을 때는 주께서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주만이 아시는 유익한 방법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장성하여 세례의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되면 어릴 때에 중생의 표를 주어 일평생 그 뜻을 명상케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새로와지는 열심이 불일듯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 대답을 한다.[31]

칼빈의 관심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지체로 인정하시는 유아들이 그의 몸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다.[32]

회개와 믿음을 이해할 만한 사람은 그것이 없으면 세례받기에 부당하지만 유아들에 대해서는 위에서 생각한 바대로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성경적 견해이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성례전이 믿음 다음에 있었고 그의 아들 이삭의 경우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할례가 먼저 있었다. 그 이유는 그 때까지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였던 장성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예식이므로 언약의 조건들을 알게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 먼저 있었고 그의 갓난 아들은 그와는 사정이 달랐던 것이다. 아들은 약속의 내용에 의해서 상속권에 따라 이미 모태로부터 언약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약론을 제기 하고 있다.

그러나 불신부모에게서 난 자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기 전에는 언약 공동체에 대해서 외인으로 인정된다고 못박는다.[33]

그와 반대로 신자들에게서 난 유아들은 직접 언약의 상속자로 태어

30) Ibid.
31) Ibid., 4 : 16 : 21
32) Ibid., 4 : 16 : 22
33) Ibid., 4 : 16 : 24

났으며 하나님이 받아 주셨으므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칼빈은 확언한다.[34]

Ⅳ. 유아세례의 확증적 성경증거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아들의 할례의 근거를 제공한 같은 원리가 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 유아할례와 유아세례는 같은 원리의 연속적인 존재이며 행위가 된다.

다음의 성경적 증거를 열거해 본다.

1. 마 18 : 1—6 ; 19 : 13, 14 ; 막 9 : 36, 37 ; 10 : 14~16 ; 눅 18 : 15~17

위의 구절들을 보아서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대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인가? 데리고 와졌던 아이들인가? 이것은 눅 18 : 15에서 갓난아기(βρέφη) 즉 젖먹이들 이라는 것으로 밝혀진다. 이런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과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여야 하는 것이 그 결론적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아세례의 유력한 증거는 못되나 유아세례를 명령한다는 사실은 보여 준다. 즉 유아세례에 가까운 원리를 보여 주는데 그것들은 1) 어린 아이들 유아들일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에 포함되며 그의 몸의 지체들이다. 2)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이고 그러므로 중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그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영접되어 져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려야 할 자들이다. 물론 이 어린이들은 오직 언약영역에 들어온 자들이어야 한다.[35]

34) Ibid.

35) A. A. Hodge, *Evangelical Theology*, 333—4; John Murray, Christian Baptism, 기독교세례론, 91.

2. 엡 6 : 1, 4 ; 골 3 : 20, 21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교훈은 아내들, 남편들, 아버지들, 종들, 주인들에게 주어진 교훈에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들도 그 계층들 중에 하나로서 그들의 합당하고 올바른 덕을 위해서 주어진 교훈이다. 여기에 어린이들이 성도로 간주되었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 그들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이며 성도들의 교통 속에 영접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3. 고전 7 : 4

고린도 교회에 불신자와 혼합결혼의 생활을 염려하는 신자들에게 격려하는 말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7 : 14) 이렇게 한 편만 믿는 부모의 자녀들도 불결하지 아니하고 거룩하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유아세례의 규례에 기초가 된다. 물론 이것이 유아세례를 증명하는 말씀이 아니지만 그것이 믿는 자들의 자녀의 거룩함이 불신자들의 자녀들의 같은 범위 속에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 거룩함이 중생의 거룩함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결합 또는 특권적 거룩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거룩은 언약의 집행과 대표적 원리를 보여주며 한 편의 부모의 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룩함에서 그 자녀들을 포함하는 거룩함이다.

4. 행 16 : 15, 33, 34, 고전 1 : 16

"저와(루디아)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간수)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내가 또한 스데바나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라고 하여 가족들의 세례를 언급한다. 이 가족들 중에 어린 자녀가 분명 있었을 것인데 세례를 받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어린 자녀들을 남보다 먼저 받게 했으며 했지 그들을 제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아세례가 가능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대표적 원리가 은혜집행의 기본이 된다. 이 대표원리의 자연스런 적용이 가족세례였을 것이고 또 그것은 분명히 유아세례를 포함했을 것이라는 것이 죤 머리의 강력한 결론이다.[36]

5. 행 2 : 38, 39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라는 말과 유아세례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회개와 세례 받으라는 권면과 약속은 성인들에게와 어린이들에게 같은 관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자녀"가 회개와 세례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거나 어린이들을 제외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성경의 본문에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 기록된 뜻은 그 약속이 부모들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 약속 안에 부모와 그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창 17 :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하신 말씀의 조명하에서 베드로의 말을 이해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집행에 있어서 이런 원리의 영원한 효력은 그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세례를 계속 시행한다.

36) Murray, 96.

일반계시와 관련한 로마서 2 : 14, 15의 의미

고 재 수

서 론

개혁신학은 일반계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살며 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신다면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사람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신자와 불신자는 같은 방식으로 이 계시에 반응하는가? 만약 차이가 있다면 불신간에 합력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또는 만약 차이가 없다면 어느 정도나 합력이 가능한가? 이와같이, 일반계시의 문제는 구체적인 생활방식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일반계시는 자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계시이다. 이 글의 주제는 두번째 부분에 속한다.

필자는 이 근삼 박사님 논문집과 오 병세 박사님 논문집에서 일반계시의 앞부분에 관계된 주제로 글을 썼다.[1] 이제 홍 반식 박사님께

1) 'Aratus와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의 문제'와 '신의식(The Sense of Divinity)' (완전한 책명은 참고도서 란을 보라)